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안희관 요셉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이민찬 비오
2구역장: 김산영 율리아 3구역장: 권혜림 세레나 청년구역장: 이동애 디오니시아 전례위원장: 엄기용 안토니오
여성위원장: 구희선 스텔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변의용 베네딕토 외교위원장: 곽형선 안셀모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항상 마스크 하기 • 안전 거리 두기 • 손 자주 씻기
-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순교의 영성을 삶으로 실천하기

(홍)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2. 9. 18.)

* 오늘 전례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지혜서 3,1-9):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변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 제2독서(로마서 8,31L-39):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 복음(루카 9,23-26):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미사 전례

본기도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교자들의 주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순교 정신으로 이끌어 주시어,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박해를 겪더라도 주님결을 떠나지 않으며, 굳센 믿음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신앙을 들여와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따랐던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굽어살피시어,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을 증언한 그들이 세계 교회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회로 불러 주신 예비 신자들을 보살피 주시어, 그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배움의 열정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를 도와주시어, 성인들의 이야기를 가까이 하고 깨치며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삶과 신앙 안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 당: 287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봉 헌: 514 주여 대령했나이다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 178 성체 앞에 / 181 신비로운 몸과 피
파 견: 283 순교자 찬가

공지 사항

- ♣ 주일학교 개학 : 9월 18일(금일)
- ♣ 밀라노 한국 순교자성당 홈페이지 오픈
- 인터넷 주소 : www.cmilano.org
신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한인공동체 가을 체육대회
- 일시 : 22년 10월 15일(토)
- 장소 : 작년과 동일 (상세내용 추후 공지)

- ♣ 회의 안내
[사목 평의회] - 금일 미사 후 Sala gichi

♣ 봉사자

	오늘(18일)	다음 주일(25일)
제1독서	박재현 미카엘	임근영 사무엘
제2독서	한진영 잼마	김윤경 모니카
복사	박시윤 이냐시오	엄채운 엘리사벳
복사	박동현 요한보스코	엄소윤 라파엘라
계단·화장실	박재현 미카엘	임근영 사무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346.9
- 교무금 € 800.-